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1월 22일(금)
--(윤력 12월 10일)--
Пятница
22 января 2021г.
№ 3 (1192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월 19일은 러시아에서 정교회 명절 주현절을 기념한다. 전통에 따라 정교회 성당들에서 성수를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 성수한 물에 입수한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전통적으로 위스크레센스키 성당에서 가가린공원 웨르호네에 호숫가까지 정교인들이 행진하고 호숫물 성수에 들어갔다. 바깥 온도는 영하 20도 이상이였다.



(취재: 이예식 기자)

1월25일은 러시아 대학생의 날 사할린 주지사 축하문

친애하는대학생 여러분!

러시아 대학생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 면에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대학시절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찬란하고, 충실하며 생산적인 학창시절을 보내길 바랍니다. 올해 사할린주에서 1만 7천 명의 대학생들이 이 명절을 기념합니다. 이들은 우리 지역의 고등교육기관과 중등 전문교육기관의 대학생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여러분이 흥미로운 고임금의 직장을 찾고 사할린주에 머물고 싶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기관의 제반시설 현대화 및 고용인들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대학생들에게는 주 예산에서 상급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문과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여러분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할린의 대학생 각자가 구상한 것을 실현시키고, 좋아하는 일에서 성과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대학생 여러분, 학업을 순조로이 성취함으로써 흥미로운 도전을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대학생의 날을 축하합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장관들에게 코로나 19 백신 접종 촉구

사할린 주지사는 지역 장관들과 시장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모범이 될 것을 촉구했다. 알레리 리마렌코는 1월 18일(월) 주 정부 실무회의에서 백신 접종중의 중요성을 밝혔다.

"사할린주 정부의 모든 직원들이 이미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지체 말고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백신 접종을 권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백신화되지 않으면 신뢰 받기 어렵다. 정부와 관계된 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 옳다."고 주지사는 강조했다.

현재 사할린 지역에는 22개의 백신접종소가 마련돼 있어 주내 각 구역들의 보건소와 외래환자 진료소 및 산부

인과 진료실에서 접종을 하고 있으며 이동진료소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예약은 '고스우슬루기(국가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등록하거나, 전화로 1-300에 추가로10번을 누르면 된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사람은 직접 보건소 접수처에서 예약할 수 있다.

지난주 사할린주에 백신화를 시작한 이래 대량의 코로나19 백신 9,100회분이 도착했다.

사할린주는 국내 생산 백신 '스푸트닉' 상당량이 첫 번째로 보급된 지역들 중 한 곳이다. 1월 말까지 사할린주에 이같은 백신류가 공급될 계획인 가운데 매달 사할린주에는 2만 회분 이상의 백신 공급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사할린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사할린주, 2020년에 물가 5% 상승

2020년 결산에 따르면 사할린주의 물가상승률이 5%에 달한 가운데 12월에는 전 제품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0.3% 상승했다. 식료품은 1년 만에 전반적으로 6.2% 올랐고, 2020년12월에는 0.6% 상승했다.

식자재 가격은 1년 만에 11.7% 상승한 가운데 가격이 크게 상승한 야채들은 토마토가 47.5%, 양배추가 28.5%, 마늘 25.5%, 당근 23.8%, 오이 17.7%, 양파 17.4%, 비트 10.4% 올랐고 반면 감자는 24.2% 하락했다. 과일들 가운데 레몬은 16.7%, 포도 14.6%,

오렌지 10.3%, 배8.3%, 사과 4.5%,바나나 3.0% 올랐다.

마카론(면)류와 곡물류 가격은 메밀이 46.6%, '헤라클레스'귀리가 31.4%, 쌀 17.4%, 귀리와 보리는 14.9% 올랐고, 반면 밀은 15.4% 하락했다.

제빵류 가격 상승률은 7.9%에 달한 가운데 고급 밀가루로 만든 제빵은 11.4%, 호밀빵류는 6.6%, 1,2등급의 밀가루로 만든 제빵은 6.1% 상승했다.

유제품류의 가격 상승은 저지방 트워록이12.8%, 멸균우유는 5.9%, 저온살균우유는3.5% 였다. (7면에 계속)

단신

1965년 희생된 어민들 네벨스크에서 추념

1월 19일 네벨스크에서 1965년 베링해에서 희생된 어민들 추념식이 있었다. 추념식은 어민 희생 기념 광장에서 진행되었다. 56년 전 중형 저인망 어선 '셴스크', '세베위', 네벨스크 트롤 함대 '나히체완', 프리모리 지역의 '복시토고르스크' 선박이 재난을 당해 12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희생된 원양어업 원정대 기념비에 어민의 친인척과 정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들과 해양사관학교 생도, 네벨스크 주민들이 경의를 표하고 잠시 묵념으로 희생자를 기리며, 추념 예식이 진행된 후 헌화했다. 1965년 1월 19일 영하 20도가 되는 베링해에서 풍속 초속 35미터에 수 미터의 파도가 밀어닥치자 선박들은 착빙으로 선박의 안정적 운항이 변경되었고 지속적인 파도로 선박이 착빙되면서 4척의 트롤 선박이 침몰했다.

사할린, 누가웨에 마을 여아(5세) 실종 사건으로 모든 해치(맨홀) 점검

지난 17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루고위에 마을에서 혼자 밖으로 놀러간 5세 여아(야나 하이롤리나)가 실종돼 자원봉사대와 경찰과 구조대, 비상대책부 직원들을 포함해 300여명이 밤 12시까지 야나 수색에 나섰다. 이들은 하수관 해치가 열려 있는 곳에 아나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 하수구 해치 속 파스한 물속에서 아나는 몇 시간 앉아 있었다. 수색대는 쌓여 있는 눈으로 덮힌 해치를 당시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를 비롯해 주내 모든 도시와 마을의 난방망 상수도 및 하수도 망의 3만 9천 개 이상의 해치 상태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이번 해치 사건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처벌받았다고 전해졌다.

사할린 주 도서관, 과학 및 기술의 해 시각

1월 18일(월) 사할린주 일반과학 도서관이 '과학 및 기술의 해' 도서 전시회를 열었다. 사할린주 일반과학 도서관은 이 행사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홍보한 2021년의 주제로 출발했다. 개막식에 주 문화 및 고문서부 노나 라브릭 장관, 디지털 기술개발부 예브게니 겐츠 차관, 사할린의 학자들과 일반과학도서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사할린 일반과학도서관에서 열리는 주제 전시회가 2월 17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유명 학자들이 과학의 성과와 발전사에 대해 저술한 선별된 출판물들이 전시된다.

전시회에서는 희귀본 및 귀중한 재단에 서 제공하는 책들이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새고려신문

2021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91루블리 85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허남훈 선생, 한국에서 시인으로 등단

지난주 신문에 한국으로 영주귀국하신 허남훈 선생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자녀와 손주들과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연말에 사할린에 들어왔는데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

허남훈 선생(1936년생)은 우리 신문 애독자다. 신문 발간 이후 첫 해부터 독자가 되었다. 사할린사범전문학교 조선과 출신으로 주내 여러 조선학교에서도 조선어를 가르쳤고 조선학교들이 폐교된 후에는 수학 선생으로 일반 중학교에서 계속 교편을 잡았다. 그리고 1990-2000년대에는 토마리 학교 학생들에게 학과 외 과목으로 한국어를 가르쳤다.

교사로 활동하면서 새고려신문사 통신원으로 본지에 수많은 기사를 투고하기도 했고, 신문 구독 캠페인에 참가하여 새 구독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사할린동포 문제를 중요시 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오랫동안 토마리 한인회 회장으로도 활동했다.

2009년에 허남훈 선생은 부인과 함께 영주 귀국하여 김포시 서암마을에 입주했다. 활동력이 넘치는 분으로서 그는 귀국 초기에 영주 귀국자들로 구성된 대한적십자사 김포시 지구 서암 봉사회 회장을 맡았다. 봉사회 회원들은 고구마를 심고, 가꾸고, 거두고 하는 일을 도왔고 복지회관 식당에서 점심을 나누는 일도 하며, 강가에서 쓰레기 치우기도 했다. 허 선생과 함께 이 봉사활동을 시작한 분들은 최근에는 나이가 들어 이 활동을 그만두게 되었지만, 대신 아직 80세가 넘지 않은 사할린 귀국자들이 이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18일(월)에 신문을 찾은 허남훈 선생은 한국에서 발간되는 <문예세상> 종합 문예지를 전달하면서 자신이 정식으로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자랑했다. 필자는 정말 반가웠다.

현재 허 선생의 부인은 영주귀국 4년 후



허남훈 (1936년생):충북 충주 출생. 사할린 사범전문학교 조선과 졸업(포로나이스크), 토마리 학교 수학 교사, 한국어 교사 역임, 한국 청소년 지도자 해외 동포상 수상, KBS 라디오 한민족방송 체험수기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로 수상, 저서: 단편소설 '향수를 달래며', 공저 '아버지를 찾아내라' 등 다수.

암으로 하늘나라로 떠났고 허 선생도 2016년에 위암, 대장암 거의 말기 진단으로 큰 수술을 받아 5년간 치료를 마치는 중이고 완치 진단을 기다리고 있다. 허남훈 선생은 사할린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했다.

"나이가 들어 지금 혼자 사는 게 힘들어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아플까봐, 혼자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점심은 주로 복지회관에서 나눠 주는 경로, 아침, 저녁은 간단하게 빵 등으로 하지요... 암치료가 끝나면 사할린으로 돌아와야죠. 만팔도 기다리고 있어요... 딸은 영주귀국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거기서 뭐 할거냐고'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손자녀들을 돌보고 있어요."라고 허 선생이

이야기했다.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스스로 자가격리를 해야 했고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사할린도 오갈 수가 없어 굉장히 답답했다고 한다. 그래도 허남훈 선생은 계속 글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이번에도 새로운 시 몇 편을 쓰고 문예지에 보내기로 했다.

"말은 해야 늘고, 글도 써야 발전이 있으므로 시를 써 놓고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러시아어는 유창하지만, 한국어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란 허남훈 선생님의 당선소감의 일부가 마음에 와닿았다.

항상 노력을 하고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두려워 하지 않은 허남훈 선생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따라야 하지 않을까!

(배순신 기자)
(이예식 기자 촬영)

송어 떼

허 남 훈

송어 떼 송어 떼 사할린의 송어 떼
수년 만에 올라오는 은빛 나는 송어 떼
그 넓고 넓은 강 위로 힘차게 올라가는
고향집을 찾은 송어 떼 행복 춤을 추네
송어는 고향을 찾았는데
나는 나는 왜 수십 년이 지나도
고향을 못 가나, 내 고향을 못가나

송어 떼 송어 떼 고향이 그리워서
수년 만에 고향 찾은 어미 되어 돌아온
그 넓고 넓은 대양도 버리고 돌아온
그래도 고향이 좋아 날뛰는 송어 떼
송어는 고향을 찾았는데
나는 나는 왜 수십 년이 지나도
고향을 못가나 내 고향을 못가나

아픈 역사의 단면도를 그린 작품

허남훈의 작품 <송어 떼>, <웨네라(Vенера)>, <오리에게 부탁하네>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문학은 체험의 개구성이다.'란 말이 있다. 체험을 통하여 이미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허남훈은 일찍이 조국을 떠나 해외에서 생활해오면서 조국을 그리워하고 있다.

허 시인은 1950년부터 문학 활동을 했다. 시와 소설을 오랫동안 써온 분이다.

이번에 정식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신인상에 응모를 하였다.

<송어 떼>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가 짙게 나타난다.

<웨네라(Vенера)>에서는 사랑의 여신을 그리고 있다. 시적 기교는 없으나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의 파스한 정을 느낄 수 있다.

<오리에게 부탁하네>에서 사할린동포들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 오리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는 처절한 아픔을 노래하고 있다. 아픈 역사의 단면도를 보는 것 같다.

시는 정서의 표출이다. 허남훈의 작품은 고향과 조국을 그리워하는 데서 문학이 시작되고 있다.

앞으로 더욱더 정진하여 시인으로서 대성하길 바란다.

심사위원 김 전, 박희익
<문예세상>계간 종합문예지,
2020 봄호

이 모 저 모

샤호쵸르스크 출신의 교사 명성 있는 전국 대회에서 우승

지난해 말 샤호쵸르스크의 교사 타치야나 사웰리에와가 명성 있는 전 러시아 대회에서 우승한 학습자료를 출판했다고 우글레고르스키 뉴스에서 보도됐다.

타치야나 구리에브나 사웰리에와는 수년간 음악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수법 참고서를 출판하고 있다. 지난해에 20세기 러시아 음악에 대한 그녀의 세 번째 교재가 출판되었다. 이는 음악학 교육과정의 준비를 위한 귀중한 책이다.

이 참고서를 국내 우수 출판사 중 하나인 '작곡가 - 상트페테르부르크'가 2020년 12월에 출판했다. 교재에는 표준 시험 및 과제를 비롯해 많은 삽화와 작곡가들의 삶의 흥미로운 사실들도 실려 있다. 타치야나 사웰리에와가 저술한 3권의 교재 시리즈는 '음악의 국가 능숙'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모스크바 교육청의 지원으로 '예술의 신비로운 세계' 제 6회 국제 이론 작품 경연이 열린 가운데 사웰리에와의 교재가 '교재'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Преподаватель из Шахтерска победила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еподаватель из Шахтерска Татьяна Савельева опубликовала свое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которое победило на престижном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Угледорские новости».

Татьяна Гурьевна Савельева много лет выпускает методические пособия для учеников музыкальных школ.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а опубликована ее третья книга — о русской музыке XX века. Это полноценный учебник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по курсам музыкальной литературы.

Учебник был выпущен в декабре 2020-го одним из

ведущих профильных издательств страны — «Композитор —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Помимо стандартных тестов и заданий, в учебнике есть любопытные факты из жизни композиторов и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иллюстраций. Серия, в которой изданы все три книги Татьяны Савельевой, называется «Музыкальный ЕГЭ».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Москвы проходил VI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курс теоретических работ «Волшебный мир искусства». Учебник Татьяны Савельевой занял первое место в номинации «Учебные пособия».

'사할린 얼음' 10주년 축제가 과거의 챔피언을 부른다

2021년 사할린 얼음 축제가 10회를 맞이한다. 여러 해 동안 이 대회가 대단한 인기를 얻은 가운데 사할린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부터 더욱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월에는 낚시의 맛을 보기 위해 러시아 전역에서 사할린으로 손님들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 희망자는 참가를 위해 공식 사이트에 등록을 한 후 낚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2020년에는 4인 1조의 141 팀이 대회에 참가했는데 관람객을 제외한 참가자 수는 거의 600명에 달한다.

전통적으로 낚시대회는 돌린스크 나이바강 어귀에서 열리며 진행일은 2월 21일로 예정돼 있으나 악천후가 발생할 경우 날짜가 변경될 수도 있다.

대회는 2단계로 - 팀 경기와 대회에서 가장 불 만한 <낚시 바이애슬론>개별적 선수권 경기로 - 나뉘어 진행된다. 바이애슬론은 4개의 연속적 통과 구역에 제시하는데 각각의 구역에서 참가자들은 물고기를 낚아야 한다. 참가자가 각 구역에서 나와가 물고기 한 마리만 잡고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사람이 우승자가 된다. 이외에도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종목이 계획되어 있는데 바로 '챔피언스리그'이다. 이 대

회에서는 과거 우승자들이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은 사람에게는 상금 3만 -7만 루블리가 주어지며 우승컵과 메달 및 스노우 모빌을 상품으로 수여한다.

Юбилейный фестиваль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соберет чемпионов прошлых лет

В 2021 году фестиваль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пройдет в десятый раз. За эти годы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иобрели огромн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они привлекают все 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жителей и Сахалина, и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включая Москву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В феврале на острове соберутся гости со всех концов России, чтобы испытать рыбацкую удачу.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может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лишь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В 2020 году на старт вышла 141 команда по четыре человека каждая. А это почти 600 участников, не считая зрителей.

Соревнования традиционно состоятся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в устье реки Найбы. Дата проведения — 21 февраля. Однако в случае неблагоприятных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фестиваль могут перенести.

Состязания пройдут в два этапа: это командные испытания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е первенство «Рыбацкий биатлон», которое считается самой зрелищной частью соревнований. Биатлон подразумевает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е прохождение четырех зон, в каждой из которых нужно поймать рыбу. Победителем признается участник, который первым пересечет финишную черту, поймав в каждой из зон по одной наваге.

Кроме того, в этом году запланирован и новый вид состязаний — «Лига чемпионов».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нут победители соревнований прошлых лет.

Рыболовы, выловившие наибольший вес рыбы, получают денежные (от 10 до 70 тысяч рублей) и ценные призы,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снегоход, а также памятные медали и кубки победителей.

(3면에 계속)

주 한인협회 운영위, 2020년 사업보고와 2021 사업 계획 심의

지난 16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주 한인협회 운영위 회의가 소집되었다. 사실 정관에 따라 연말에 주 한인협회의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어야 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법무부 사할린 관리국에서 컨퍼런스 개최를 금지시켰고 따라서 주 한인협회 측에서는 운영위 회의라도 열기로 했다. 그런데 운영위원 중 일부가 코로나19 확진자로 치료 받는 중이었고 또한 이날 주내 여러 지방에서 눈보라가 치는 바람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오지 못한 지방한인회 회장도 있는 관계로 대면 회의에 참석한 유권자 수는 많지 않았다. 대신 비대면 참가자가 있어서 회의는 진행될 수 있었다

회의 의정에는 2가지 의제가 올랐다. 첫 의제는 주 한인협회의 2020년 사업 보고였다. 보고를 한 박순옥 회장은 작년에 계획한 사업은 약 90% 목적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주 한인협회에서 3개 그랜트프로젝트(장려 지원책)를 따냈는데, 그중 하나가 주 정부 지원 프로젝트, 둘째는 주 문화부의 지원 프로젝트이고, 셋째 프로젝트는 <엑손>유한회사의 지원 프로젝트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작년에 코르사코브시에 계획한 <한 가정에서>축제를, 마카로브에서는 <우리는 함께>축제를 개최하지 못했고, 지방(노글리키, 포로나이스크 등) 학생들을 위한 경연 행사도 추진하지 못했다고 박순옥 회장이 설명했다.

주 한인협회는 전통적으로 해마다 크게 두 가지 행사를 개최한다. 하나는 음력 설 명절, 또 다른 하나는 광복절 기념행사다. 다행히 이 두 가지 행사는 2020년에 개최할 수 있었다. 음력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전에 진행되었고, 광복절 행사는 연기되다가 9월 말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리고 흡스키시에서는 <한 가정에서>축제를 좀 크게 개최했다. 그 외 <장인의 박람회>한국 문화체험 축제, 김치 축제를 진행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내 행사로 50명 미만의 소규모로 진행했다.

작년부터 주 한인협회는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과 공동으로 1세 동포 어르신들을 위한 사할린

현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5 곳에 거주하는 1세 어르신 138명에게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외 재작년에 이 프로그램을 받은 분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사할린주 한인청년회에 전적으로 맡길 생각이라고 전했다. 작년에 공식적으로 단체로 등록한 주 한인청년회(회장 이 세르게이)가 그 동안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고 박 회장이 강조했다.

또한 주 한인협회에서는 1세 어르신들에게 사 고려신문 구독 지원도 하였다.

2020년에 주 한인협회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와 시행에 관련해 꾸준한 사업을 해왔다. 특별법이 가결되었지만 사할린동포들에게 만족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의견서와 청원서를 준비하기도 했다.

12월 23일에는 대한민국 정세균 총리는10개국 재외동포 11명과 의 코로나 19 감염증 상황으로 영상 회의를 가졌는데 이를 기회로 박순옥 회장이 사할린 한인의 숙원 사항(내용 본지 12월 25 일호 게재)을 전했다는 말로 박 회장이 2020년 주 한인협회의 사업 보고를 마쳤다.

2021년 주 한인협회의 사업계획은 주요 방향만 잡았을 뿐이다. 아직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을지 정확히 알기 때문이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주 한인협회는 한국 외교부와 적십자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1월 말에 이와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박 회장이 전했다.

1세들을 위한 건강관리 기획도 계속할 계획이고 한국 문화 보급 관련 사업도 지속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들을 위한 음력 설 잔치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주한인협회 측에서 어르신들을 축하할 다른 방법을 찾는 중이다.

이날 회의는 20분도 정도 진행되어 마쳤는데 필자의 기억으로는 가장 짧은 회의였다.

(배순신 기자)

컴퓨터 키보드 키 탑 위에 「조선글과 한글」로 북·남이 함께 놓은 통일의 징검다리

「한겨레 통일 표준글 자판을 갖는 단말기」 발명과 「통일 컴퓨터 드라이브 자격」 개발을 중심으로

훈민정음이 세종 25년 음력 12월 상한(1443년 1월 15일)에 창제되었고 세종 28년 음력 9월 상한(1446년 10월 9일)에 반포되었다. 훈민정음이 창제 · 반포되자 한문을 떠받드는 사대주의 신봉자들에 의해 언문이란 이름으로 멸시를 받았고 일제 강점기를 지나는 동안 처참하게 조선글과 한글은 사라질 뻔한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북·남은 분단되었지만, 훈민정음을 북측은 「조선글」(자음 19자와 모음 21자)로, 남측은 「한글」(자음 14자와 모음 10자)로 불리며 발전되면서 진화되어왔다. 이러하다 보니 자 · 모의 순서와 맞춤법 그리고 명칭과 구성 쓰임새도 각각 달랐다. 심지어 IT 컴퓨터 글자판 용어마저 다를 뿐만 아니라 글자판 키 탑(key top) 위에 배열된 글자의 위치도 달랐다.

1971년 사단법인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는 한글기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글기계화 연구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 당시 한글 기계화 추진위원회 구성은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초대 부흥부장관을 지낸 시인 주요한 박사를 비롯하여 한글 3벌식 속도 타자기를 발명한 공병우 안과 박사, 한글학자 최헌배, 김 성, 박종국 박사 등 한글학자들과 타자기 글자판 개발자들과, 타자 교사들 위주로 인적 구성이 되었다. 그 이후, 1976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재구성된 위



원은 미래 정보화 시대 디지털 혁명으로 제4세대 인공지능 출현에 대비하고 통일을 준비하면서 '한글 기계화'에서 '한글 정보화'로 패러다임이 변화했기 때문에 전문 연구 인력도 IT 전문 인재들로 재편되었다.

이에 조석환 박사는 1970년대 한글 기계화추진위원회 정보화 위원으로 위

촉된 바 있고 1994년 사단법인 한국정보관리협회 회장에 취임하여 한글기계화와 한글 정보화에 지속적인 많은 연구에 몰두해왔다. 2001년에는 당시 지식경제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통일을 대비해 조 박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1인의 컴퓨터 글자판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통일을 준비하였다. 또한 2017년에는 국립한글 박물관이 개관되면서 한글 도록《한글이 걸어온 길》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어 한글 기계화 및 한글 정보화 영역을 맡아 집필하기도 했다. 지금 고려에도 글자판에 배열된 키 탑(key top) 위에서 두 손에 분담된 손가락들을 리듬 있게 번갈아 가며 빠른 퀵-스냅-스트로킹(quick-snap-stroking) 동작으로 원고에 시선을 고정한 채 손가락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키(key)를 입력하며 문서를 눈 깜짝할 사이에 생산해 낸다. 그야말로 속도전이다.

(한국정보관리협회 제공)
(계속)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러시아 상점에서 상품을 촬영하는 것 공식적으로 허용

러시아에서 1월 1일부터 소매 상품의 새로운 판매 규정에 대한 효력이 시작되었다.

현재 상점들에서 각종 제품들을 사진촬영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구매자의 입장의 요구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자판기류에서는 현재 환불 처리에 대한 정보도 나오고 있다고 러시아 국영 통신이 전하고 있다.

소비자보호감독청 공식 사이트에서는 소매점에 상품 판매의 새로운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1월 1일부터 모든 소비 매장 제품 판매소에서는 제공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구매자의 권리 제한을 금지한다. 현재는 모든 제품들을 사진 촬영할 수 있으며 동시에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구나 불만에 응답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각 매점에 설치된 모든 자판기에는 영업 시간, 사용 방법, 연락처 제시, 소유자의 주소와 구매자가 주문한 물품을 받지 못했을 경우 환불에 대한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이 새로운 판매 규정은 온라인 상점에서도 적용되는 가운데 현재 판매자는 구매자와 성사된 거래 확인증을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주유소에서도 휘발유 품질에 대한 서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서류들에는 석유 공급지, 제조사, 연료 운반업체의 실제 주소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В России официально разрешили 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 товары в магазинах

В России с 1 января вступили в силу новые правила продажи розничных товаров. Теперь в магазинах можно 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 ассортимент, а продавцы

обязаны будут отвечать на претензии со стороны покупателей. На вендинговых автоматах теперь появи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возврате денег.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РИА «Новости».

На сайте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опубликованы новые требования продажи товаров в розничных магазинах. С 1 января во всех торговых точках запрещается ограничивать права покупателей на получ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бо всех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на прилавках группах ассортимента. Все товары теперь можно 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 Помимо этого, продавцов обязали отвечать на все претензии покупателей. На всех автоматах по продаже должна быть информация о времени работы, правилах пользования, указаны контактные телефоны и адрес владельцев, а также информация о возврате денег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покупатель не получил свой заказ.

Новые правила коснулись и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ов. Продавцы теперь должны предоставлять покупателям подтверждение совершенной сделки. На заправках можно требовать копии документов о качестве бензина. В таких бумагах должна быть указана информация о нефтебазе, изготовителе и фактическом адресе, с которого топливо отгрузили.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과 도시 방문객들을 전망 좋은 여행에 초대

주 중심의 주민과 방문객들을 무료 전망 좋은 도심 관광에 초대한다. 체험 관광은 2시간이 소요된다. 이 기획은 '문화 관광의 중심도시 유즈노사할린스크' 지방자치기관이 조성했다.

편안한 버스를 타고 관광하는 동안 관광객은 카라후토 총독 시기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역사와 건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오늘날 도심 지역에는 당시 문화유산 40여 점이 남아 있다.

도심 관광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진행되며 역사적 장소 - 블라디미로브카(유즈노사할린스크의 역사적 시 작점) / 도심 주요 광장(레닌, 포베다(승리), 슬라와(영광)) /

도심 주요 거리/ 유리 가가린 시공원/ 유즈노사할린스크 성전들 / 향토 미술박물관 - 방문을 포함하고 있다.

사전 신청은 월~금요일 9:00~18:00까지 210-310번으로 전화, 인스타그램 @cooltour65, 또는 What's App 8-950-301-03-10로 접수하고 있다. 웹사이트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문화 및 관광 센터'에서는 여행 일정뿐 아니라 여행에 대한 추가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приглашают на обзорные экскурсии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риглашают на бесплатные обзорные экскурсии по городу. Познавательная поездка займет два часа.

Организатором проекта выступило МАУ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о время поездки на комфортабельном автобусе участники экскурсии смогут более деталь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историей и архитектурой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периода губернаторства Карафут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тольк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города расположено около 40 объектов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этого времени.

Экскурсии проходят по вторникам, пятницам и субботам. Они включают посещ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их мест:

- Владимирова (историческое начало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основные площади города (площади Ленина, Победы, Славы);
- основные улицы города;
- парк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ени Ю. Гагарина;
- храм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краеведческий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и.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запись ведется по телефону 210-310 (с понедельника по пятницу, с 9:00 до 18:00). Подать заявку можно в Instagram @cooltour65 или в What's App 8-950-301-03-10. С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об экскурсиях, а также графиком их проведения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сайте МАУ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работы РООСК за 2020 год, намечены планы на 2021 год

В минувшую субботу, 16 январ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правления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а нем было рассмотрено два вопроса: отчет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РООСК в 2020 г., план работы РООСК на 2021 г.

Отчитываясь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РООСК в 2020 г, президент Пак Сун Ок отметила, что план работы за год был выполнен на 90%. Это очень неплохой результат, учитывая ограничения, связанные с пан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ООСК смогло провести два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х мероприятия: празднование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состоялось до пандемии) и празднование Дня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Была продолжена реализация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екта РООСК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ого Фонд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Здоровье»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1-го поколения. Было охвачено 138 человек из пяти городов и сел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ООСК выиграл три гранта: гран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области и грант компании «Эксон нефтегаз лимитед». В рамках этих грантовых проектов были проведены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едставляя план работы на 2021 год, было отмечено, что он представляет лишь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учитывая ситуацию с пан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работа по реализации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должена программа «Здоровье» и т.д.

В связи с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ей было отменено традиционное празднование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В конце января состоится рабочее совещание с Обществом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вопросам репатриации, которая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рамках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ш корр.)

Сеул станови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дорогих городов мира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агентства Numbeo, Сеул подскочил с 10-го места в 2019 году на 6-е в 2020 году по индексу цен на продовольствие среди 376 крупных городов мира.

Он обогнал даже Нью-Йорк и Осло, а поскольку все пять самых дорогих городов находятся в Швейцарии, столицу Южной Кореи мож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к второе самое дорогое место на земле.

Цены на продовольствие в Сеуле выше, чем в глобальных мегаполисах в европейских странах, чей валовой внутренний продукт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колеблется в пределах \$50 000 и \$80 000.

Сеул подпрыгнул сразу на 58 позиций по ценам на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 64-го места в 2015 году.

Эксперты считают, что цены на продовольствие будут и в дальнейшем расти в связи с недавними вспышками африканской свиной лихорадки и птичьего гриппа.

ИА РУСКОР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Россия потеряла выдающегося учёного

6 января в Москве скоропостижно скончался академик Броня Цой. 27 января ему должно было исполниться 76 лет. До последнего дня он продолжал заниматься наукой.

Как-то в Пуццо, в г. Наукограде, в 2002 г. на каком-то научном симпозиуме ко мне подошёл незнакомый человек, скромно попросил заполнить анкету и разрешения с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 Мне, закаленному столичным бесцеремонным напором, такая застенчивость была непривычной. Этим он и запомнился. Потом мне сказали, что это академик Броня Цой. Так он работал с персоналиями для первой в истории энциклопед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Она вышла в год 140-летия доброволь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в 2004 году.

Какую надо было иметь силу духа, чего стоил этот огромный, в полторы тысячи страниц исторический фолиант специалисту по физике твердого тела и полимерным материалам, еще напишут историки-биографы.

Вот также блистательным метеором, свершив пять(!) научных открытий, ворвался он в мир научной элиты. Наверное, не все представляют значимость открытия и отличие его от изобретения. Открытие — это общие универсальные природные свойства, явления и закономерности, а изобретение — это их конкретные практические приложения. Изобретений у нас сотни тысяч, открытия исчисляются единицами. Во всей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есть несколько ученых, сделавших одно открытие. Ну, два. Четыре, пять — наверняка, нет ни у кого!

Глядя на невероятные деяния его, порой действительно кажется, что он упал к нам с неба. Ведь все мы вышли из тех самых беднейших и безроднейших слоев населения, которые не так уж давно покинули Корею. Покинули не в поисках лучшей жизни (как это делают сегодня), но от голодной смерти. И вот уже у нас нарождаются академики.

Нас у матери было пятеро

— Я родился, как и многие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 Средней Азии в Чирчикском районе Ташкентской области. Судьба, в общем-то, ничем не отличается от тысяч подобных. Также как и все, мои родители стремились дать образование своим детям. Моя мать свершила подвиг — одна подняла пятерых детей, все получили образование. Отец умер, когда я был школьником. Мать была простой крестьянкой, уборщицей и швеей, работала в детском саду. За свою жизнь я поменял более 40 школ. Потому что родителям пришлось скитаться, переезжать с места на место. Окончил школу в Душанбе, в Таджикистане, где, в общем-то, прошли основные годы становления и сознательной жизни. Конечно, я никогда не думал, что стану ученым. Поступив в пединститут на мехмат, я скорее выполнял волю матери. Был момент, когда я мог и не стать физиком. В 1966 г. я поступал в МГУ на философский факультет. Не прошел по конкурсу. Приехав в Душанбе, поступил на физический факультет Таджик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В.И. Ленина. Проучившись год на дневном, перешел на вечернее отделение, надо было помогать матери растить младших братьев и сестру. Днем работал на заводе, вечером — в институт. Учился средне, вот на первом курсе, на дневном, да, хорошо учился.

Занимался я мутной и рутинной работой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учебы на вечернем факультете был приглашен на работу в университет, где и поступил в заочную аспирантуру.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лет защитился. Вообще-то я занимался самыми обычными прозаическими вещами, мутной работой, испытывал образцы, изучая прочность, долговечность материалов. Там такое нужно терпение! Один образец мог через секунду порваться, а другой через полгода. И я должен был вести наблюдение. Я занимался тем, от чего отказывались все коллег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ставить одну точку на графике, я испытывал порой до тысячи образцов. В то время по ГОСТу максимально требовалось не более десяти образцов. Если надо было проводить температурные измерения, я их делал, в отличие от других, не через 20-30, а через 1-2 градуса.



Академик Броня Цой

Тщательность этих измерений, мой труд привели к самым неожиданным результатам. Оказалось, что в природе физические величины в общем случае имеют не нормальные Гауссовские распределения, как это было общепринято, а полимодальные, с несколькими максимумами. Нормальное — это лишь частный случай! Была получена новая закономерность. Я разработал статистическую методику, показал, при каком количестве образцов результаты могут быть достоверными, надежными и воспроизводимыми. Это стало темой моей дальнейшей работы, включая докторскую диссертацию, и основой еще для нескольких диссертаций моих сотрудников.

Эффект Цоя-Карташова-Шенвелёва

Дальнейшие работы как-то неожиданно привели к открытию явления дискретности физических характеристик твердого тела. Но это было уже

позднее. В конце 80-х, после 15 лет работы в науке, руководство кафедры физики твердого тела (где я в то время работал, узнав, что у меня докторская диссертация готова к выпуску) уволили с работы в университете, чтобы я не смог никогда защитить докторскую диссертацию! В тот момент наступили горбачевские времена. Я ушел в бизнес.

В советские времена не могло быть и речи о регистрации открытия, полезли соавторы, и я бы, наверное, затерялся. А с распадом Союза пришлось вообще похоронить эти мысли надолго.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исследованиями твердого тела, я занимался все эти годы.

По жизни я работал еще с советских времен с математиками Э.М. Карташовым и В.В. Шевелевым. Они из Московской академии тонкой химической технологии (МИТХТ) им. М.В. Ломоносова, где я и сейчас работаю. Нас трое, каждый делал какую-то свою работу, но все они были взаимосвязаны и вытекали одна из другой. Я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экспериментатор, они теоретики. Если рассказывать об открытиях, то они вряд ли будут доступны и интересны широкому читателю: «Явления одноэлементного масштабного эффекта физических характеристик». Это так называемый «Эффект Цоя». Или «Явление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ого разброса данных и закономерность распределения физических характеристик твердых тел при внешнем многофакторном воздействии». «Явление пучка» или «Эффект Цоя-Карташова-Шевелева» и др. Скажу только, что в результате, объединив все существовавшие до нас подходы (механический, термодинамиче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инетический, диффузионный и т.д.), мы создали достаточно стройную структурно-статистическую кинетическую теорию разрушения материалов, равных которой пока нет.

Мы можем загнать всю библиотеку Ленина в размер плеер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ши открытия работали, их надо было превратить в конкретку, в изобретения. Скажу откровенно, все эти теории, кроме научной славы, ничего не принесли. Это все затратные механизмы. Все эти исследования, монографии (их написано более 10) мне приходилось самому финансировать. Я вложил все свои средства, заработанные в бизнесе. А изобретения здесь настолько оригинальны и эффективны, что могут приносить невероятные результаты и доходы. Вот, например, «Материал для изготовления высокоточных компонентов радиоэлектронных приборов и способ его изготовления». Любые резисторы, емкости, индуктивности,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имеют разброс физических характеристик. Компоненты, выполненные по нашей технологии, вообще не имеют разброса и погрешностей. Наши микроэлектронные элементы имеют просто идеально стабильные электрические параметры. Сегодня, чтобы получить такие компоненты требуются сверхчистые материалы, уход в нанотехнологии. Это очень дорогостоящее удовольствие. Мы же научились получать то же самое, не изменяя химической структуры материала. Не требуются больших средств. Причем наш транзистор имеет на много порядков выше стойкость к токовым перегрузкам, работает устойчиво при высоких температурах.

(Источник: газета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Продолжение в следующем номере)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1 руб. 8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 РК надеется на то,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огда-нибудь посетит Сеул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ен Ын когда-нибудь посетит Сеул. Тем более, чт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в ходе визита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в Пхеньян в 2018 году. Выступая 18 января на новогодней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он готов встретиться с Ким Чен Ыном в любое время и в любом месте. Он отметил, что верит в волю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 миру, диалогу и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Мун Чжэ Ин выразил разочарование по поводу того, что развитие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остановилось, когда переговоры 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между Пхеньяном и Вашингтоном зашли в тупик. Президент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они возобновятся. Мун Чжэ Ин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отношений Сеула с Пекином, поскольку Китай является крупнейшим торговым партнёром РК, и две страны сотрудничают ради достижения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Говоря о ситуации с COVID-19,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отметил, что РК сможет добиться формирования коллективного иммунитета быстрее, чем другие страны, в рамк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вакцинации. Это может произойти не позднее конца ноября.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вакцинация начнётся в феврале и завершится к сентябрю, - отмет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Коснувшись возможности помилования двух бывших президентов страны Пак Кын Хе и Ли Мён Бака, осуждённых за коррупцию, президент Мун Чжэ Ин отметил, что пока не время обсуждать данный вопрос. В условиях, когда два бывших президента отрицают свои преступления и не соглашаются с судебными решениями, трудно согласиться с призывами к помилованию, - добавил он. В связи с растущим беспокойством по поводу роста цен на жильё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сказа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в этом году расширить предложение жилья в масштабах, «значительно превышающих ожидания рынк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в Сеуле возобновят работу

В связи со смягчением эпидем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возобновляют работ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культурные учреждения, расположенные в Сеуле.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во вторник откроют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центральный музей, Национальный музей традицио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Национальный музей соврем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Сеульский центр искусств и На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музыки Ку-гак. Се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театральным труппам также разрешено проводить выступления. Все объекты должны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нормам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уровня 2,5. В частности, число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ходящихся в них посетителей не должно превышать 30% нормы.

В Пхеньяне состоялась сессия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17 января в Пхеньяне состоялась сессия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на которой обсуждались кадровые, бюджетные и другие вопросы в развитие решений, принятых на Восьмом съезде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Как сообщало в понедельник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депутаты утвердили пятилетний план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принятый на съезд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бюджет на этот год и кадровые перестановки.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 на сессии не присутствовал. Выступая с отчётом о выполнении предыдущего пятилетнего план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КНДР Ким Док Хун сказал, что были допущены «серьёзные ошибки», в этой связи перед страной стоят «тяжёлые задачи по выполнению нового пятилетнего план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нституцией КНДР, сессия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является высшим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м органом страны. В перерыве между сессиями законодательная власть сосредоточена в руках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В Пхеньяне состоялся военный парад

Вечером 14 января в центре Пхеньяна состоялся военный парад по случаю завершения Восьмого съезд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парад открыли бронетранспортёры, за которыми последовали современные так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Далее по площади проехали «ультрасовременные самоходные артиллерийские орудия, грандиозно демонстрирующие мощь нашей артиллерии». Наконец по площади проехало «самое мощное оружие в мире,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подводных лодок, убедительно демонстрируя мощь революционных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ЦТАК. В нём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что КНДР - это «государство, обладающее ядерным оружием, и величайшая оборонная держава в мире». О том, были 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 параде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е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не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касается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подводных лодок, то опубликованные фотографии не позволяют судить об их тактико-технических данных. На параде присутствовал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ен Ын. (RKI)

Глава Samsung Electronics приговорен к 2,5 года тюрьмы за коррупцию

Вице-президент и де-факто руководитель крупнейше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и Samsung Electronics Ли Чжэ Ен вновь признан замешанным в коррупционном скандале вокруг экс-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Пак Кын Хе и ее подруги Чхве Сун Силь. Он приговорен к двум с половиной годам тюрьмы. Как отмечают эксперты, данное решение суда может стать знаковым для истории борьбы Южной Кореи с коррупцией и взяточничеством, тогда как экономисты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изнеса беспокоятся о негативном влиянии на всю экономику Южной Кореи.

Вице-президенту Samsung Electronics 52-летнему Ли Чжэ Ену не привыкать к судебным баталиям. Он сразу же оказался в центре скандала вокруг экс-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Пак Кын Хе и ее подруги Чхве Сун Силь, которых обвинили в паре десятков преступлений, включая коррупцию,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е полномочиями, вмешательство в выборы и прочее. Однако, если Пак, которую досрочно сняли с поста президента, и Чхве уже получили примерно по паре десятков лет тюрьмы и огромные штрафы, то вице-президенту Samsung Electronics Ли Чжэ Ену до сих пор удавалось оставаться на свободе.

Суды уже три раза выносили решения по поводу его возможного участия в коррупционных схемах, где Ли, как утверждало обвинение, в различных формах передавал взятки Чхве и Пак в обмен на помощь в получении прав на управление концерном Samsung. В 2017 году Ли был приговорен к пяти годам тюрьмы, но подал апелляцию, и уже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приговор был заменен на условный срок. Но прокуратура Кореи не сдавалась. В 2019 году Верховный суд Кореи в ходе очередных слушаний пришел к выводу, что Ли передавал взятки на общую сумму 8,6 миллиарда вон (около 8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и дал указание пересмотреть дело.

В понедельник Верховный суд Сеула вновь рассмотрел вс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дела и пришел к выводу, что Л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ыл замешан в коррупционных схемах, приговорив его к двум с половиной годам тюрем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Вице-президент Samsung Electronics был взят под стражу в зале суда.

Адвокаты Ли Чжэ Ена, скорее всего, подадут апелляцию на это решение, а потому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и бесповоротного вердикта еще придется подождать. Однако очень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на этот раз Л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ядет», так как именно Верховный суд Кореи, который буд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 апелляцию, и решил, что Ли передавал взятки и дал указание провести новое судебное разбирательство, вылившееся в итоге в реальный тюремный срок.

Всю эту тяжбу вокруг Ли Чжэ Ена уже давно называют "процессом века". Значение процесса куда больше, чем простая отправка за решетку главы крупно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онцерна. Дело в том,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уже давно прославилась на весь мир своим размахом и бескомпромиссностью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амым влиятельным фигурам, которые были заподозрены в нарушении закона. В Корею отправлялись за решетку почти все влиятельные лица, неприкасаемых почти не было: несколько бывших президентов страны, премьер-министры, судьи, прокуроры, генералы, депутаты, самые влиятельные духовные лидеры и прочие фигуры. Главы почти всех крупнейши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нцернов побывали в тюрьмах.

Но слово "почти" использовали до сих пор именно из-за Samsung. Эту компанию называют в Корею "республикой Samsung" за ее влияние и закрытость, это своего рода государство в государстве. Samsung



Фото: AP Photo/Lee Jin-man

Electronics является крупнейшей компанией Южной Кореи, это символ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мощи и инноваций всей страны, прибыли концерна исчисляются десятками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а его популярность просто зашкаливает.

Трудно сказать, по причине этого влияния или нет, но глава Samsung в отличие от коллег, руководителей других конгломератов, а также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так ни разу и не был приговорен к реальному тюремному сроку. Это касалось и недавно скончавшегося Ли Гон Хи, который вывел Samsung Electronics из лиги просто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 ранг действительно могущественной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ой корпорации. Его сын, Ли Чжэ Ен, который сменил отца на посту лидера корпорации, аналогично, получив пять лет тюрьмы в 2017 году, уже через год смог заменить срок на условный.

Однако время исключений для "Республики Samsung", судя по всему, подходит к концу. Ли, который собирался вскоре официально получить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корпорации, снова оказался в тюрьме, и перспективы на пересмотр вердикта не самые лучшие.

Впрочем, влияние Samsung на корейскую экономику, общество и страну слишком велико, чтобы его можно было игнорировать. И хотя юристы считают, что Верховный суд Кореи скорее всего утвердил приговор, сделав его окончательным, нельзя исключать и обратное.

На фоне ликующих борцов с коррупцией,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некотор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а также следователей прокуратуры, которые, как они сами говорят, "смогли в конце концов пробить стену Samsung", уже стали громко слышны обеспокоенные высказыва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бизнеса, финансистов и прочих экспертов отрасли.

В флагамент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слишком много всего завязано именно на Ли Чжэ Ене, его видении и идеях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корпорации, а потому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ряд амбициозных проектов,строек и инвестиций Samsung приостановит или вообще откажется от них. А это станет уже ударом для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ы в целом и для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Южной Коре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В итоге республике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ридется решать, что важнее –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и борьба с коррупцией ил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обеспечивать лидерство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гонке технологий, а также достаток и прибыль. Правда, на этот раз шансы очень велики, что "стена Samsung" в итоге падет, и в Южной Корею не останется тех, кому удавалось до конца побеждать следователей в судебных баталиях.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Устали от запретов 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носить маски

Коллективное недовольство ограничениями в связи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продолжает расти в Южной Корею, при этом девять их десяти южнокорейцев заявляют, что чувствуют себя «усталыми»

Согласно опросу 837 взрослых порталом InCruit, 94,1 процента респондентов сказали, что они аккумулялировали усталость в связи с затянувшейся пандемией.

Самыми главными причинами накопления усталости назывались ограничения во встречах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и друзьями (12,2 процента) 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ношения защитных масок (12,1 процента).

Мужчины находили трудным сопротивляться запретам сборищ (12,5 процента), а женщины ношению масок (12,1 процента).

9,4 процента опрошенных отмечали сомнения в инфицировании, 9,4 процента называли замедление экономики, 8,9 процента социальное дистанцирование, 8,4 процента ухудшение ситуации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и 7,5 процента повторение волн инфекции.

Другие причины усталости, связанной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включали ухудшение финансового положения (5,8 процента), не падающее число ежедневных новых случаев (5,5 процента), прибавку в весе (4,8 процента) и ожидание вакцины (4,1 процента).

По возрастам, главным источником усталости для тех, кому за 20 и 30 лет, назывались сомнения в вакцинации, а тех, кому за 40 и 50, беспокоит замедление экономики.

ИА РУСКОР.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оступила крупнейшая с начала иммунизации партия вакцины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 9100 доз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в стране получил значительный объем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препарата «Спутник V», который уже доказал сво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 увеличить объёмы поступающей на острова вакцины, чтобы прививку могли сделать все желающие. Это позволит останов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опасной инфекции. Для вакцинации планирует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не только медучреждения, но и передвижные комплексы. Также, чтобы увеличить доступность иммунизации, предложено организовать доставку жителей отдаленн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в райцентры, где они смогут привиться.

Важный груз – несколько объёмных ящиков с вакциной – встретили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16 января препарат оперативно доставили на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ий склад, где уже началось его распределение по медучреждениям.

– До конца января ждём такую же партию. И каждый последующий месяц – не менее 20 тысяч доз. Мы, можно сказать, начинаем наступательную операцию против коронавируса. Предлагаем проходить вакцинацию целыми трудовыми коллективами, чтобы появлялись так называемые «зеленые зоны»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где люди могут работать без риска заразиться. Вакцина – единственное эффективное средство, способное остановить инфекцию и спасти жизни людей,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щук.

В тот же день вакцина поступила в поликлиник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южные районов острова. Везде созданы необходимые условия для хранения в холодильниках с температурой минус 18 градусов.

– Наша поликлиника ждёт более 1000 доз. Желающих привиться очень много. С понедельника откроем вторую точку вакцинации – в амбулатории Хомутово. Сейчас принимаем до 80 человек в сутки и вскоре еще увеличим объёмы, – рассказа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главного врача поликлиники №4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лексей Ефимов.

Вакцинация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добровольная и бесплатная. Запись на прививку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через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 Тем, у кого есть сложности с доступом в Интернет, можно обратиться напрямую в регистратуру поликлиники.

Напомним, что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в стране начал вакцинацию еще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 Сахалине для спортсменов и любителей активного отдыха открыли гору Красную

Сахалинский «Горный воздух» 17 января запустил в работу долгожданную канатную дорогу и открыл первую трассу для катания горнолыжников и сноубордистов на горе Красная. Опробовать новый склон и «канатку» в первые часы собрались более полутора тысяч островитян и гостей региона.

Сахалинские поклонники горнолыжного спорта и сноуборда давно ждали открытия новых трасс. Спортивный объект получил разрешение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остехнадзора и был введен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Событие ознаменовало новый этап развития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как самого крупного и динамично развивающегося горнолыжного курорт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Гора Красная – самая высокая точка на комплексе – 779 метров над уровнем моря – это почти на 200 метров выше соседней горы Большевик. С вершины открывается живописный вид на море и гору Острая,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позади. Шикарная фрирайд-зона с хорошим уклоном доставит удовольствие любителям кататься вне подготовленных трасс и в лесном массиве.

– Я рад увидеть здесь такое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любителей горнолыжного спорта и сноуборда. Запуск уникального объекта, который был построен с нуля, – большая гордость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важаемые друзья, спортсмены, в добрый путь, хорошего всем настроения, отличных спусков, поздравляю всех с этим замечательным событием! – приветствовал гостей комплекс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щук.

Первым отрезком склона, открытым для катания, стала самая протяжённая трасса горы Красной с рабочим названием «А1». Её длина составляет 4,5 километра. На вершину можно подняться всего за 13 минут. 2,5-километровая канатная дорога стоит на 19 опорах и оборудована 130-тью шестиместными креслами с подогревом, чего ранее на комплексе не было.

Право стать первооткрывателями трассы и торжественно спуститься по склону предоставили Татьяне Борзенко и Эдуарду Зайнуллину – самым активным участникам сахалинской Декады спорта-2021. Они прошли все 4 этапа новогодних региональ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ий кросс, лыжный забег, турнир по сноуборду, состязания на горных лыжах – и собрали полноценную медаль-пазл.

– Было очень приятно ехать первой, потому что сами знаете – на всех аттракционах стараешься сесть в первый ряд, и это очень здорово. Рассмотрела трассу со всех точек зрения: для езды на лыжах, сноуборде, под-

метила тропки, где буду фрирайдить – всё впечатляет. Качество снега хорошее, всё гладко и ровно. Есть и крутые участки, что всегда будоражит, есть и живописные, ради которых стоит привести сюда друзей-фотографов, – поделилась эмоциями Татьяна Борзенко.

–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всё достойного уровня. Мы летали в декабре с сыном в отпуск, были на курорте Роза-Хутор на Красной поляне, и я считаю, что Сахалин ничем не уступает, даже показалось, что у нас интересней. Это и виды на окружающую природу, и в плане доступности – всё рядом, можно пешком дойти, тогда как там до курорта очень долго добираться, – рассказал Эдуард Зайнуллин. – Я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ал открытия горы Красной. Этой осенью забегал на неё в рамках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а теперь покорил её на лыжах.

Вместе с жителями области горнолыжную трассу опробовал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имир Ющук и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Сергей Буренков.

– Хочу сказать, что здесь при спуске вырабатывается больше адреналина, чем на других трассах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У ребят, которые спускались со мной, эмоции просто зашкаливали, они делили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между собой. Считаю, что не зря было отдано столько сил, чтобы запустить гору Красная. У меня нет сомнений, что это будет местом притяжения не только любителей горнолыжного спор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о и всей страны, – отметил после спуска Владимир Ющук.

Сахалинец Дмитрий Дубровский за годы увлечения сноубордом успел побывать не только на склонах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но и за рубежом.

– Новая трасса – уровн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урортов, как в Асахикаве в Японии или на Хай-1 в Корее. Снег мягкий, очень мягко идёт доска, замечательные виды вокруг а также приятно, что подъёмники с подогревом. Я считаю, что это большой толчок в развитии горнолыжной отрасли как для Сахалина, так и для все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сказал Дмитрий.

Опробовать новую трассу приехали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цы, но и жители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Артём Миаковский и Анастасия Голикова прилетели на остров из Благовещенска.

– Я каждый год посещаю Сахалин, чтобы покататься на горных лыжах. Это не так далеко от нашего города и здесь очень классно, а что самое главное – много снега и сопки гораздо выше в сравнении с нашими, – поделилась подробностями Анастасия. – Артём здесь впервые, это я его уговорила прилететь со мной на Сахалин, чтобы оценить местные склоны. Что касается новой трассы – она очень длинная в сравнении с другими и на ней приятный снег.

Опробовали новый склон и иностранные горнолыжники. Среди них – англичанин Ричард Стоун.

– Мы всей семьёй очень ждали открытия новых трасс. После первого спуска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всё просто замечательно, особенно учитывая то, что весь склон покрыт натуральным снегом. Я в восторге, – сказал Ричард.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при наличии снежной погоды «Горный воздух» сможет предложить посетителям 35 километров трасс и 5 новых, не похожих на предыдущие, склонов с общей протяжённостью 11 километров. Они включают в себя все уровни сложности и подойдут как для новичков, так и для опытных горнолыжников и сноубордистов.

В проекте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уже более 160 тысяч пенсионеров

Областная программа для повышения жизненной активности и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реализуется третий год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в возрасте 55 лет и старше бесплатно пользуются возможностями для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в спортив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ых и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Социальные карты выдают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населения.

–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 это проект, который помогает улучшить жизнь наших пенсионеров. С е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по всей области, расширился и перечень услуг. Если сначала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лагались спорт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виде групповых занятий физкультурой с тренером, посещений тренажерного зала и скандинавская ходьба, то теперь к ним добавились бассейн, занятия волейболом и другие не менее популярные виды спорта, – рассказала Ольга Орлова,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населения.

В 2020 году участники проекта могли бесплатно посетить 35 учреждений, подведомственных министерству культуры. В частности, Сахалинскую филармонию, зооботанический парк,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и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и, Чехов-центр, кинотеатр «Комсомолец».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водились на базе 28 учреждений: в спортивных школах самбо и дзюдо, лет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восточных видов единоборств, по волейболу, ФК «Сахалин» (Олимпия), спорткомплексе «Кристалл».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ария Марченко в числе первых вступила в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еще в 2019 году.

– Благодаря проекту я уже посетила много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а днях была в Чехов-центре на театральной постановке. Получила большое удовольствие,

люблю театр. В магазинах и аптеках покупаю товары со скидкой по социальной карте, очень удобно. Есть еще спорт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Я в них редко участвую, но многие пенсионеры регулярно ходят в бассейн или спортивный зал. Самое главное, проект дает нам возможность встречаться, общаться друг с другом. Пожилым людям это особенно важно, – поделилась Мария Николаевна.

В рамках «Сахалинского долголетия» каждый участник может посетить до 20 мероприятий в месяц. Кроме того, по социальной карте пенсионеры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скидки до 10 % при приобретении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лекарственных препаратов и бытовой химии. Дисконт владельцам социальных карт предоставляют по области в 34 аптеках и 148 торговых точках.

Сахалин примет финал Кубка мира по Всемирному паралимпийскому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Масштаб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йдут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с 21 февраля по 7 марта. За медали поборются десятки именитых спортсменов-паралимпийцев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мира.

Вопросы подготовки к крупному спортивному мероприятию обсуд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Организационную встречу откры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Владимир Ющук. Он отметил, что на время состязаний необходимо уделить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мер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ом прибытии участников. Они прилетят на остров charterным рейсом и пройдут экспресс-тестирование в аэропорту. Перемещаться паралимпийцы будут на специальных автобусах.

– Проведение соревнований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 большая честь 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ы должны сделать все, чтобы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на высоком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м уровне. Важно не только подготовить спортив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но и обеспечить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участников, – подчеркну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щук.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мимо россиян,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паралимпийцы из США, Швейцарии, Румынии, Норвегии и других стран. В программе финала Кубка мира – шесть дисциплин.

Кубок мира – один из крупнейших стартов для спортсменов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после мирового чемпионата и Пара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России этапы Кубка проводились только в 2013 году в Сочи и в 2020-м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 награды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боролись около 40 выдающихся спортсменов из 10 стран. Состязания по достоинству оценили параатлеты, а также российские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аралимпийские комитеты.

Теперь Сахалин готовится принять финал Кубка мира для горнолыжников-паралимпийцев.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Горный воздух» позволяет проводить состязания самого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В распоряжении спортсменов – 5 канатно-кресельных дорог и 35 километров горнолыжных трасс различного уровня сложности. Качественное покрытие обеспечивают 11 современных снегоуплотнительных машин. Еще одно преимущество комплекса – «Welcome-центр» с пунктом питания, комнатами для переодевания, подготовки лыж и пунктом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3 февраля городской родильный дом войдет в соста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Процесс реорганизации учреждения практически завершен. Выполнены все предусмотрен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мероприятия, внесены изменения в Устав, сотрудники роддома оповещены о предстоящем переходе.

Процедуру обсудили 12 январ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на совещани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двух медучреждений –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и городского роддома. Процесс реорганизации длился более года, и сотрудники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днимали вопросы будущег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 Коллектив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полностью сохраним, в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е никто не должен потерять. Это принципиально важно. Уверен, такое решение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улучшению качества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женщинам и детям. Перинатальный центр, как организация более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сможет обеспечить методологическую поддержку и улучшить процессы маршрутизации пациентов,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щук.

– В городском родильном доме работают специалисты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с ними уже отлажен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читаю, что слияние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и городского роддома принесет пользу жителям. Объединенная структура будет принимать не только горожанок, но и рожениц из других городов юга Сахалина, – поделилась заведующая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методическим отделом перинатального центра облбольницы Анна Немцева.

Отметим, расположение имеющихся структурных отделений городского родильного дома и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остается на своих местах.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가라후토로 팔려간 이쁜 고모

2020년 KBS 방송 한민족상 수상작

(전호의 계속)

그 후 매일같이 저녁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집에 와서 기웃거렸다. 고모에게 냉수는 얻어 마시지 못했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 사나이의 소원은 이뤄졌다."

몇 달 후 어린 고모는 그 남자한테 시집을 갔는데 3년도 못 채우고 불행이 젊은 가족을 찾아왔다.

"딸 둘 낳고 시부모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남편이 집에 안 붙어있고 자주 돌아 다니기 시작했다.

나가면 반년 만에 돌아오고, 두 달, 석 달 만에도 오고, 노름 해서 돈을 따면 집에 들어와서 그 돈으로 며칠 살다가 나갔단다."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고모네는 땅을 파서 여섯 식구를 먹여 살리기 어려웠다고 한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소작쟁의로 농촌이 더욱 궁핍해지자 세상이 흉흉해지기 시작한다. 이런 세상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불안해진 남편이 노름판에 빠져서 논도 집도 다 팔아 먹었다고 한다. 그래서 봉순이는 처녀적 다니던 누에 공장에 나가서 푼돈을 벌어 식구를 부양하지만 먹고 살기 힘들었다. 남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일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봉순이는 낙담했다.

모집 광고에 속아서 가라후토로 팔려간 고모

"내가 화대 처음 왔을 때 니 아버지 누님 집에 가니께 농사를 크게 짓고 그 외판집에 있더라. 거기서 농사를 짓고 말 두 마린가 먹이고, 뭐, 밀 심어 갖고 그래 팔아 먹었다. 산판에 사는 일본 사람들이 말을 먹이려고 사갔단다. 그래 갖고 누님 집은 괜찮게 살았다. 돌린스크, 그 당시 오찌아에서 한 130리 들어가는 텐데 우리도 갔다 왔다.

아주 산중에 농촌인데 거기 한국에서 조선사람들 모집해다가, 일본 사람들이 모집해다가 벌목시켰단다.

나무 비는 거. 니 고모님네 집은 가다 중간이고, 그니까 고모님은 그 산판에 가는 중간에 외판집을 사 가주고 남편하고 거기서 농사짓고 살고 있었다. 그래 농사진 걸 저기 벌목하는 데 돌려 보내서 이제 큰 돈 벌었단다."

고모는 아직 어린 큰딸은 시부모한테 맡기고 어린 딸을 등에 들쳐업고 고향을 떠나서라도 돈을 벌어서 집안 식구들과 어린 두 딸들 입에 풀칠이라도 해서 살려야만 했다. 그때만 해도 "일본 땅에 가면 좋은 일이 있다"고, "일본에 가면 돈 많이 벌어들 수 있다"는 소문이 남조선을 휘돌았다. 그래서 모집을 한다고 마을을 휘젓고 다니는 이장의 안내로 마을 사람들과 봉순이는 면사무소에 갔다. 거기서 한기호라는 조선 사람이 젊은 여자들을 일본 땅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말로 젊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었다. 그는 고운 봉순이를 본 순간 백방으로 설득하기 시작했다.

"일본 땅 가면 그렇게 좋은 일 있은께

한 2년씩 벌여 가지고 오면은 좋지 않은가?

아이 하나 팔려 있는 사람께정은 데려가겠다."

고모는 "어차피 이판사판이니가 가봅시다."라고 주먹을 불끈 쥐고 아이를 업은 포대기 끈을 다시 짝 당기며 결심을 한다. 집에 돌아왔지만 봉순이는 며칠 밤낮 동안 생각하고 생각한다. 등에 매달려 배고파 우는 아이들 우는 소리에 아이는 두고 갈 수 없다고 하자 아이 하나만 데리고 갈 수 있다는 조건을 수락해 주었

다. 기차가 무주역을 떠날 무렵 창밖에는 큰딸을 손잡고 나오신 시부모들이 걱정스런 얼굴로 배웅을 한다.

"아버님, 어머니! 그간 안녕히 계세요. 2년만 있다가 돌아 올겁니다.

정님아! 우리 올 때까지 밥 잘먹고, 공부 잘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말 잘들어."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고모는 어린 딸 정인이가 언니와 헤어지는 게 너무 슬퍼 영영 우는 것을 달래느라고 더욱 가슴이 아프다. 이날 역사의 소용돌이가 이 가족을 영원히 갈라 놓았다. 모집꾼 한기호는 약속과 다르게 일본 본토가 아닌 가라후토로 데려갔다. 무정한 사기꾼 한기호가 생전 처음 기차를 타 본 시골뜨기 아낙네들을 화대에 끌고 가서 팔아 먹을 작정이었다. 한동삼인 오도마리항은 봉순이 일행을 모진 풍설로 맞이했다. 부두는 조선에서 온 친척들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로 꽉 찼다. 여자들을 도요하라에 데려와서 번두리에 있는 다 찌그러진 오막살이 집에 배치했다. 그 집에는 놀랍게도 젊은 여자를 사러 온 나이 먹은 할아버지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말 그대로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다. 그러나 기다리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아이가 하나 팔려 있는 봉순이가 마지막으로 팔렸다. 고모보다 16살이나 더 먹은 40대 노총각(리밀선)이 큰 돈을 주고 사게 되어, 갈 곳 없는 모녀를 다음 날 이른 아침 오찌아에서 130리 떨어진 깊은 산골짜기로 데리고 갔다. 일순간 속아서 노예의 삶을 지내게 되었다고, 안 살겠다고 울고 불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돈을 못 구해서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자 고모는 가라후토에서 난생 처음 보는 사내와 원하지 않는 또 한 번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섬에 묶이게 된다. 이듬해 건강한 아들이 태어나고 이쁜 딸이 태어난 것이다.

그렇게 고모는 1남 2녀를 두셨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은 1940년 젊은 나이에 강제징용에 몰려 일본 군함도라고 불리는 해저탄광에 끌려가서 갇다가 무너져 사고로 사망한다. 몇 달 후 아비 잃은 유복자(리경오)가 태어난다. 사후 4년이 지난 어느 날 며느리는 다른 동네에 사는 조선 남자와 눈이 맞아 집에서 나가서 소식이 끊어진다. 고모는 아들이 남겨준 유일한 손자에게 젖을 빨리며 키우시게 된다. 손자는 할머니를 '어머이'라고 부르면서 삼촌들과 숙모들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성장한다. 고모는 남은 여생을 손자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다. 나보다 2살 더 먹은 조카이지만 나는 친구처럼 지냈다.

고모는 1979년 유언에 따라 어머니가 묻히신 노보에 촌 공동묘지에 함께 안장됐다. 일제의 모집에 끌려온 이국만리 흑독한 가라후토 추위를 견뎌내면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지켰다.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두고 온 만딸을 그리워 하시다가 끝내는 돌아가지 못하고 이국땅에 묻히셨다. 이번에 고향에서 가져온 친정집 집터의 흙을 뿌려드렸다.

오늘따라 멀리서 고모라고 부르고 뛰어가면 말없이 등을 두드려 주던 이쁜 고모가 그림고 그림다.

박승의



[우리말로 깨닫다]

코끝을 꿈꾸다

우리 몸은 각각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모두 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코는 특이한 점이 많은 곳입니다. 코는 자기가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선 코는 나를 가리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나를 가리킬 때 코를 가리킵니다. 코가 나의 대표인 셈입니다. 한자에서 나를 나타내는 스스로 자(自)가 원래는 코[鼻]를 나타내는 글자였다는 점도 코가 나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입니다. '내 코가 석 자'라는 속담에서도 코가 내 상황을 의미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콧대가 높다'와 같은 표현에서는 자신감, 자만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나와 관계가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는 붉게 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코부터 빨개집니다. 술을 많이 마셔도 코가 빨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주정뱅이를 그럴 때 코를 빨강게 그리기도 합니다. 또한 코를 자주 만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는 긴장하거나 뭔가 숨기고 있을 때 코를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코는 거짓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코를 만지는 것이 거짓말을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주 코를 만지는 습관이 있다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다른 곳이 아니라 코가 길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코는 우리의 감정을 보여줍니다. 눈물이 참을 수 없는 감정의 쏟아짐이라면 코는 감정을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코끝이 쩡해지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주로는 감동적인 장면에서 코끝이 쩡해 옵니다. 감동이라는 말이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니 감동이 코끝으로 몰려 온 느낌입니다. 웬지 모르지만 눈물의 전 단계 느낌도 있습니다. 코끝이 쩡해지면 나도 모르게 코에 힘을 주고 인상을 쓰게 됩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내 감정을 보여줍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코끝에 더 힘을 주게 됩니다. 콧등이 시려오고, 입술도 더 다물게 됩니다. 내 속에 담긴 감정의 흐름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엉뚱하게 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코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저의 엉뚱한 상상에서 출발합니다. 며칠 전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코끝이 쩡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가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말이 올해의 유행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코끝'입니다. 엉뚱합니다만 저는 코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코로나 끝'이 동시에 생각이 났습니다. 올해는 '코끝'의 세상이기 바랍니다. 코끝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기 희망합니다. 작년의 유행어에는 고통이 쌓여 있었는데 올해의 유행어에는 희망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즐거운 유행어를 꿈꾸어 봅니다. 그런 유행어를 우리가 만들어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기는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고 계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 보면 코로나가 안 끝나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더욱 자주 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새로 시작하는 일도 많습니다.

갑자기 코끝이 쩡해 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리움도 고통이 됩니다. 아직도 한참이나 남은 고통에 마음이 아려옵니다. 힘들지만 버텨내고 모두 건강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다시 일어나기 바랍니다. 다시 밝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힘든 일보다 기쁜 일이 더욱 많기 바랍니다. 코끝!

(출처: 재외동포신문)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사할린주, 2020년에 물가 5% 상승

(1면의 계속)

2020년 수산물 가격 상승은 6.2%로 연어알은 16.8%, 기름 소스의 생선 통조림은 13.9%, 염장 또는 숙성시킨 생선 통조림과 훈제 생선은 12.4%, 연어를 제외한 손질된 냉동 생선은 8.8%, 염장 청어는 4.2%, 냉동 통생선은 2.3% 올랐다.

훈제품류의 1년간 가격 상승률은 7.9% 였고 삶은 콜바사(소시지)는 11.2%. 반훈제 콜바사는 7.7%, 소시지와 사르젤키는 6.4% 올랐다. 육류 제품은 빼 있는 양고기가 15%, 쇠간이 14.1%, 쇠고기 4.8%, 빼 있는 돼지고기 3.6% 상승했고, 반면 닭고기는 2.2%, 빼 있는 돼지고기는 2.7% 하락했다.

식료품 중에 가격이 상승한 제품들은 설탕이 40.7%, 해바라기유 32.9%, 마요네즈 11.9%, 케첩 11.8%, 올리브유 11.2%, 야채 통조림 10.6%, 차류 8.1%, 달걀 7.8%, 밀가루 6.8%, 치즈 6.6%, 제과류 5.4%, 버터 4.1%, 커피가 4%로 올랐다.

1년 만에 비식품류의 물가 상승률은 4.9%로 12월에는 0.3% 올랐다. 약품류는 11.1%, 담배 제품 9.5%, 향수 및 화장품 7.3%, 세제 7.1%, 전자제품 및 생활용품, 학용품 등은 5.3%, 내의류 4.4%, 경차 4%, 겂옷 및 속옷 3.3% 상승했고, 반면 모피 및 모피제품은

2.7% 하락했다. 1년 만에 차량 연료 가격 상승률은 8.2%로 오른 가운데 경유(디젤)가 4%, 차량 휘발유가 10% 올랐으며, 차량 휘발유 가격은 AI-98이 11.9%, AI-95가 10%, AI-92가 9.2%가 올랐다.

서비스 부문 물가상승률은 1년 만에 3.2% 올랐고 2020년 12월에는 0.2% 올랐다. 서비스 부문에서 시내버스 이용료는 1년 만에 10.8%, 항공 이용료는 4.2%, 주택 및 공공서비스 2.9%, 미용 0.8%, 통신 이용료는 0.7% 올랐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동으로 기초식품류 가격에도 영향을 주었다. 기초식품군에 소비자들이 가장 자주 찾는 식품 33개가 포함됐다. 기초식품군의 가격은 사할린주에서 2020년 12월 말 월평균 6,290.84 루블리로 한 달 만에 0.2% 가격이 올랐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기초식품군 가격은 6,084.81 루블리로 한 달 만에 0.2% 하락했다(2019년 12월에는 8.4% 상승). 코르사코브는 6,372.69 루블리로 한 달 만에 1.5% 상승(2019년 12월에는 11.7% 상승), 포로 나이스크에서는 6,326.76 루블리로 한 달 만에 0.2% 상승(2019년 12월 14.7% 상승), 오하에서는 7,142.86 루블리로 한 달 만에 0.9% 상승(2019년 12월에 4.8% 상승)했다고 사할린 통계청이 보고했다.

사할린 우리말 방송국 김춘자 국장님께 드리는 축하문

고희를 맞으신 김춘자 국장님! 진심으로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말과 얼을 지키기 위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의욕과 애정을 쏟으시고, 우리말 TV방송국 설립 및 제작에 있어 김 국장님의 기여가 대단히 크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할린동포에 대한 큰 열의에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하며, 또한 언론인으로서의 길을 <레닌의 길로>(현 새고려신문사)에서 시작하셨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김춘자 국장님께서 앞으로 행복한 나날을 즐기시며, 무병장수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에 항상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고려신문사 전 및 현 사원 일동

Уважаемая Светлана Михайловна!

Примите самые сердечные поздравления с 70-летним юбилеем! Вы – пример активной деловой женщины, журналиста, на счету которого создание уник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 Урималь бансон, неугомонн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еятеля, действующего во благ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м очень приятно, что свой творческий путь в национальную журналистику Вы начали в редакции нашей газеты. От всей души желаем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счастья, огромной любви ближних и душевного спокойствия.

Коллектив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폴리그랜드>회사 서 예브게니(서인수) 대표 이사님께 드리는 축하문

장기간 지속적으로 새고려신문을 후원해주시는 서예브게니 대표이사님의 회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귀택에 행운과 부유함, 안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가운데 늘 성공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귀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Уважаемый

Евгений Дмитриевич!

Примите самые сердечные поздравления с 60-летием! Пусть юбилейная сегодняшняя дата В душе Вашей оставит добрый след, Желаем мы всего, чем жизнь богата: Здоровья, счастья, мира, долгих лет!

Коллектив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새고려신문 살리자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SAKH.COM • БИЛЕ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sakh.com

Загрузите в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0-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